

일본 ESG투자의 현황과 시사점 (상)

-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경영체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사회와의 관계, 투명한 경영체제 구축 등 비재무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흐름을 반영
- 기업은 종전 재무적 성과에 따라 투자를 받아 왔으나 최근 ESG 평가를 통해 ESG투자를 받게 되며 'ESG평가를 반영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
- ESG투자의 기준은 UN이 제창한 '책임투자원칙(PRI)' 6개 항목은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요소이며 ESG 투자 총액은 2016년 22.9조달러에서 2018년 30.7조달러로 약 34%가 증가했으며 전체 투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스튜어드십 코드(2015)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2016) 도입 △GPIF 투자원칙 정립 △글로벌 ESG투자 확대 등으로 대응

I. 들어가며

- 지난 200년 이상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시장경제와 기업의 목적이 최근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9년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본주의 재설정'을 주제로 다루었고, 미국 CEO 협의회에서는 기업의 존재 목적을 '주주이익'을 위한 것에서 '이해 관계자'로 바꿈
 - 1960년 패러다임을 '한 시대의 보편적인 인식 체계'로 정의했던 토머스 쿤은 사회도 생물처럼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식 체계를 만들어낸다고 했으며 오늘날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종전 주주에 대한 가치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사회로부터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지속가능경영 체제의 수립을 요구받기 시작했으며 이때 재조명받게 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ESG임

2. 왜 ESG인가?

1) ESG란 무엇인가?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경영체제(governance)」의 3요소의 머리글자를 따온 표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할 자세를 제시한 것임

- ESG의 출발은 UN(국제연합)에서 2006년 공표한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책임투자원칙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환경, 사회, 경영체제를 투자기준에 반영하도록 요구
- 이러한 ESG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를 ‘ESG투자’라 하며, 이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ESG를 평가하는 기관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도표 1〉 ESG 기본적 3요소

ESG 요소	개요	구체적 추진 예시
-Environmental (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구체적으로는 환경오염 및 생물다양성의 배려, 에너지·CO2 배출량 삭감 노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제조공정 폐기물 저감
-Social (사회)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노동환경 및 인권문제의 배려,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은 ESG 평가 높음	-공급사 인권문제 배려 -생물다양성 및 일·삶 밸런스 -개인정보 보호·관리
-Governance (경영체제)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관리체제. 경영의 투명성이 높은 기업 및 자본 효율화 추진 기업 등은 고평가	-적극적인 정보공시 -이사회 다양성 -자본효율에 대한 높은 의식

출처: THE OWNER, ESGの意味とは? CSRやSDGsとの違いや企業での対応法について徹底解説, 2020.7.24

- 이에 최근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SG투자’가 금융시장에 주류로 부상할 만큼 대폭 확대 추세
- 특히, ‘Governance’는 광의로 사용되며 예를 들어 사외이사 및 여성관리직 등용, 이익을 배당금으로 적극 배분,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장기적 수익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영활동이 여기에 해당
- 최근 ESG 이슈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ESG 평가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
-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요구받아온 기업들은 선행과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협력사 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에 집중했으나 CSR이 권유와 선택의 문제였다면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좌우하는 피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종전 재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하던 금융기관들이 ESG 인증을 요구하게 되었고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만이 투자를 받고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음

2) ESG투자

- ESG투자란 ‘ESG평가요소를 반영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UN이 제정한 ‘책임투자원칙(PRI)’ 6개 항목은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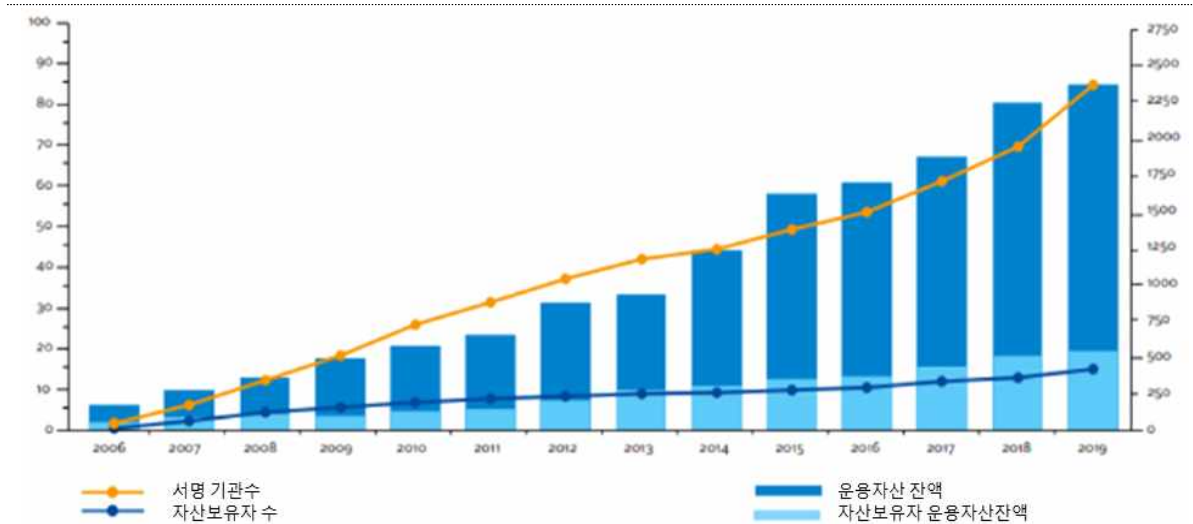
〈도표 2〉 책임투자원칙(PRI) 6항목

1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 ESG과제를 반영한다
2	투자방침에 ESG문제를 추가한다
3	투자 대상 기업의 ESG과제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요구한다
4	자산운용업체가 본 원칙을 수용하고, 실행으로 옮겨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5	본 원칙을 실행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협력한다
6	본 원칙의 실행과 관련한 활동상황 및 진척상황에 관해서 보고한다

출처: PRI ‘責任投資原則’, <https://www.unpri.org>

- 지금까지 많은 투자가는 ‘환경, 사회를 의식하는 투자는 회수율이 낮다’라고 생각해왔으나 최근 ‘환경 및 사회를 배려하는 투자는 리턴이 크고 리스크가 작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서 투자의 흐름이 크게 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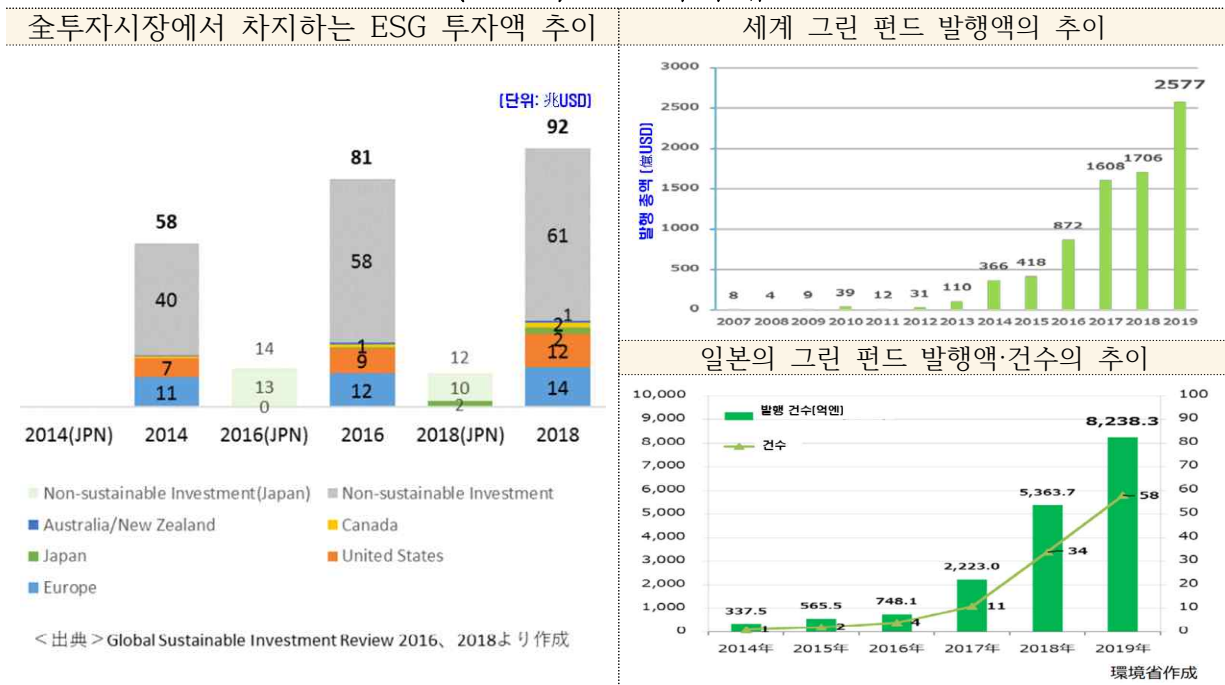
〈도표 3〉 PRI에 서명한 자산보유자(Asset Owner 수(數)와 운용자산 잔고의 합계



출처: PRI ‘責任投資原則’, <https://www.unpri.org>

- UN이 2006년 제창 이래 책임투자원칙에 기관투자가 및 '자산보유자(Asset owner)'가 속속 서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수는 2019년 2,000건을 상회하고 있음
- 또한 UN에서는 2020년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SG를 중시해야 한다는 '책임은행 원칙(PRB)' 이 제정하였고, 이미 18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전세계의 ESG 투자 총액은 2016년 22.9조달러에서 2018년 30.7조달러로 약 34%가 증가했으며 전체 투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럽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가 그 다음을 잇고 있으며 일본은 7.1%를 차지
-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16년 0.2%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ESG 투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린 펀드 발행액도 증가 추세로 2020년 3,500억 달러로 추정

〈도표 4〉 ESG 투자 규모



출처: 経済産業省, 気候変動分野に関するファイナンスの取組について, 2020.10.13

環境イノベーション・ファイナンス研究会 (2020年), 中間取りまとめ 参考資料抜粋

○ ESG투자의 종류

- GAIA는 ESG투자를 다음 7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앞의 6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ESG투자의 전략이고 7번째 ‘참여(Engagement)·의결권행사형’은 의결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른바 ‘주주행동권’형의 전략임

〈도표 5〉 ESG 투자 기법

투자 기법		개 요
1	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ESG항목에 기반, 특정 섹터 및 기업 등을 투자처에서 제외 1920년대 미국의 기독교계 재단에서 시작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수법으로, 지금은 유럽에도 널리 보급. 무기, 도박, 담배, 주류, 원자력발전, 포르노 등 비윤리적인 특정 분야의 기업을 투자처에서 제외하는 전략
2	Positive/best-in-class screening	업종 내에서 비교하여 ESG 성과의 평가가 높은 기업에 투자 1990년대에 유럽에서 시작된 수법, 동종 업계 중에서 ESG 관련 평가가 가장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 ESG에 적극적인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업적이 높게 될 것이라는 발상에 기반 한 투자
3	Norms-based screening	OECD, ILO, UN, UNICEF 등이 책정한 국제규범 미충족 기업 제외 2000년대에 북유럽에서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수법. ESG 분야에서 국제 기준미충족 기업을 투자처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법. ‘Positive Screening’에 비해 투자처 기업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음
4	ESG integration	투자처를 분석·선정시에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ESG정보도 포함하여 분석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수법.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종래 고려해 온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도 포함해서 분석하는 전략. 특히 연기금 등 장기 투자성향이 강한 자금을 운하는 펀드 등이 종래의 사업리스크 및 경쟁력 등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재무정보(ESG정보)를 활용하여 시장 평균보다도 크게 리턴(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5	Sustainability-themed investing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특정 테마 및 자본 (예: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대해서 투자 ‘지속가능성’을 전면으로 주장하는 펀드에 투자.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특히 재생가능에너지, 지속 가능한 농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유망.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펀드, 그린본드 등도 이 카테고리에 속함
6	Impact/community investing	특정의 사회적문제 또는 환경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 사회·환경에 공헌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행하는 투자. 비교적 소규모의 비상장기업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 형태의 펀드 운용은 벤처캐피탈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로부터도 자금제공을 모집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임팩트 투자 중에서 사회적 약자 및 지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것은 커뮤니티 투자라 불리어지고 있음
7	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ESG방침에 따라 엔게이지먼트, 주주제안, 의결권행사를 행함으로써 기업행동에 영향을 끼침 주주로서 기업의 ESG에 관한 안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투자 수법.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일상적인 경영자와의 대화, 정보공시 요구 등을 통해 투자처 기업에 대한 ESG 배려 압박. 최근에는 기후변화 관련 및 임원 보수(SAY ON PAY)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짐. 이 형태의 수법을 취하는 주주는 ‘적극 재정론자’, ‘행동하는 주주’로도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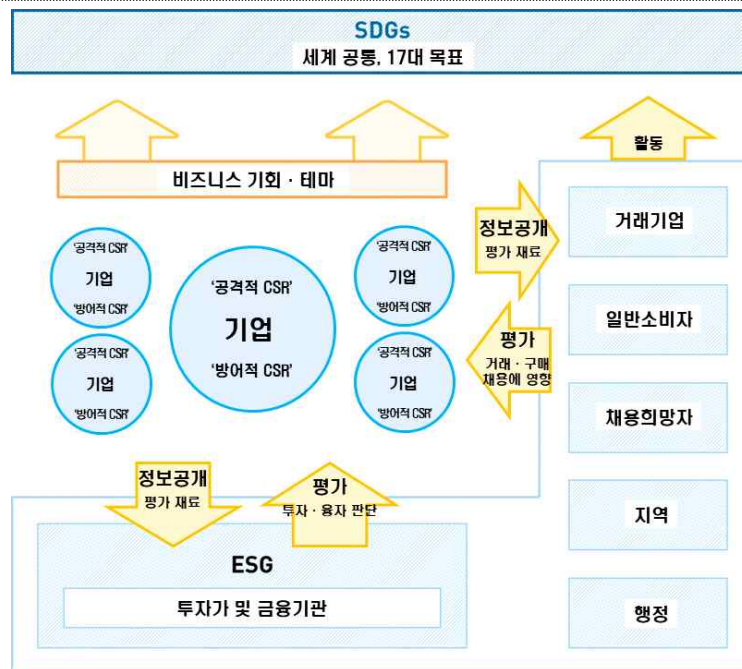
출처: GSIA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의 관계

□ 종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CSR, SDGs와 ESG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CSR, SDGs, ESG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SDGs의 17대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타겟)’와 ‘ISO 26000의 핵심 주제’는 모두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로 분류 가능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도표 6〉 CSR, SDGs, ESG의 관계



출처: CSR `SDGs `ESG의 차이と関係性について(2020.9.30.) <https://www.ibnet.ne.jp/column/csr/200930/index.html>

- ① 2030년까지 글로벌 전체 목표는 SDGs의 목표로 수렴
 - ② 기업, 행정, 비영리 조직, 개인 등 글로벌차원에서 SDGs의 목표·타겟을 향한 활동 추진
 - ③ 이에 비해 투자가 및 금융기관은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ESG) 활동 내용으로 그 활동을 지원(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
 - ④ 거래기업, 일반소비자, 채용희망자, 지역, 행정 등은 기업의 도입 및 추진 방향에 찬성하는 경우에 거래의 판단, 상품·서비스의 구입, 채용응모 등을 실시하는 움직임
 - ⑤ 이해관계자가 바르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으로부터의 정보공개가 중요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DGs’, ‘CSR’, ‘ESG’는 각각이 밀접하게 얽혀져 있고, 최종적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도표 7과 같음

〈도표 7〉 CSR, SDGs, ESG의 차이

내 용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측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업이 지속성장을 위해 주주 및 종업원, 고객, 거래처,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익의 일부를 사회 환원과 더불어 거버넌스에 관한 정보를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				
ISO 26000	ISO ¹⁾ 26000: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2010.11.1) ⇒ CSR의 국제 표준(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의사결정 및 활동 등을 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NGO 등 7개 경제주체가 대상				
	7대 원칙	1.설명책임, 2.투명성, 3.윤리적 행동, 4.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5.법치 존중, 6.국제 행동 규범 존중, 7.인권존중	7대 핵심 주제	1.조직 거버넌스, 2.인권, 3.노동관행, 4.환경, 5.공정한 운영 관행, 6.소비자 이슈, 7.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0년~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종료의 후속 조치로,2015년 9월 UN정상회담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다양성과 포용성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적 목표(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일본은 총리를 본부장, 조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SDGs 추진본부’ 설치(‘16.5)‘SDGs 액션플랜 2020’에서는 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외에,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지방창생 추진, 강인한 모노즈쿠리, 순환공생형사회 구축, 차세대·여성의 역량 증진, 보건·교육 등에 대해서 정관재(政官財)가 일체가 되어 추진				
	주요 목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분석·평가(재무·비재무(ESG) 정보) 투자(유자) 판단기준 ⇒ 투자가측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환경과 사회 및 자사의 거버넌스에 배려하는 기업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투자 수익도 기대됨향후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기업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때에 ESG는 필요 불가결한 경영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ESG를 확실하게 추진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 CSR의 差) 관점이 ‘기업 측면에 있는지’와 ‘투자가 측면인지’의 차이▶ (ESG & SDGs의 差) ‘일본 정부, 관료, 재계가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지’와 ‘투자가를 주체로 하고 있는지’의 차이				

출처: CSR `SDGs` ESG의 차이와 관계성について(2020.9.30.) <https://www.ibnet.ne.jp/column/csr/200930/index.html>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공업 규격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1947년 발족. 또는 이 기구에서 작성한 국제 산업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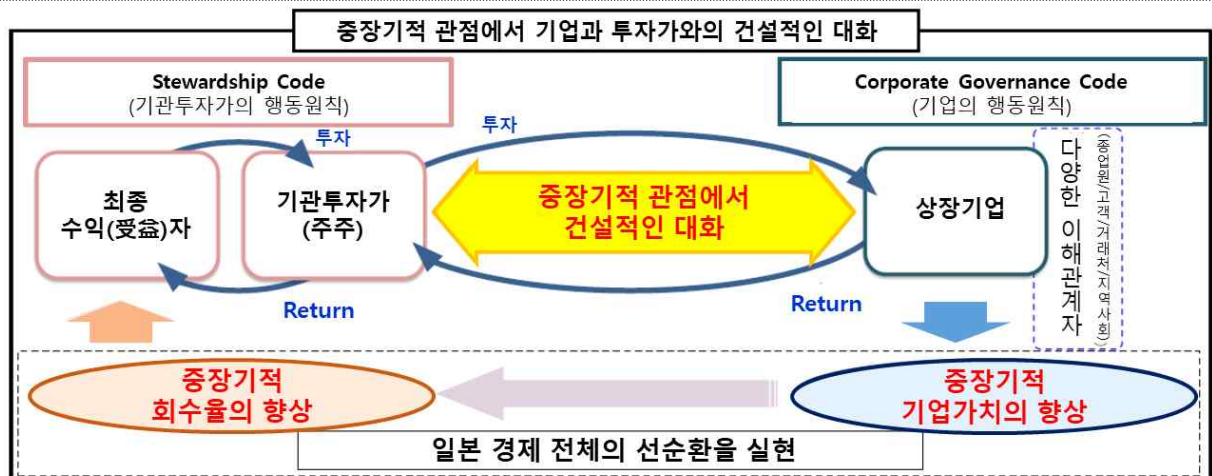
3. 일본의 ESG 대응 현황

- 일본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ESG투자에 적극 지원키로 하고 금융청이 발표(2014.2)한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가 발표(2015.6)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는 모두 ESG투자 개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스튜어드십 코드’ 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도입

- 일본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Stewardship Code’ 와 ‘Corporate Governance Code’ 를 활용, 일본 경제 전체의 선순환 실현을 도모

〈도표 8〉 스튜어드십 코드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관계



출처: JPX(일본거래소), 「ESG情報開示実践セミナー」_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再改訂のポイント

- 스튜어드십 코드(2004년 2월 책정→2017년 5월 개정→2020년 3월 재개정)

⇒ 기관투자자(연기금 및 그 위탁을 받은 운용기관 등)에 대해서, 기업과 대화를 통해 증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처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원칙

-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2015년 6월 적용 개시→2018년 6월 개정)

⇒ 상장기업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관계자(주주, 종업원, 고객, 거래처, 지역사회 등)과 적절하게 협력하면서 실효적인 경영전략 하에 ‘증장기적으로 수익력 개선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원칙

2) 글로벌 ESG투자의 확대

-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도 2015년 9월 서명, 현재 ESG는 금융업계에서 특수한 투자 수법에서 일반적인 투자 수법으로 변모

- * PRI(책임투자원칙)에 동참 및 서명 투자기관 수(2020.1 시점)는, 전 세계적으로 2,860사 초과, 일본 국내에서도 80사 이상
- ** ESG투자 운용자산: GSIA²⁾(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세계 ESG 투자액에 관한 통계자료 집계 등 공표)에 따르면, 운용자산 잔고 ‘16년 22.8조 달러 → ’18년 30.6조 달러 초과, 특히 일본은 그 성장세가 현저히 빠름

3) 연금적립금관리운영독립행정법인(GPIF)³⁾의 투자 원칙 정립

- GPIF는 기본 투자 원칙에 ESG 관련 항목을 추가(4~5번), 연기금 운영에 ‘ESG투자’를 적극 도입·활용하고 있음

* 운영 연기금 추이: (‘20.3) 151조엔 → (‘79.3) 479조엔으로 정점으로 하락 예상

** GPIF 보유주식 5,111개 종목, 채권 13,919건 발행

《GPIF 투자 5원칙》

1. 연금사업 운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오로지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재정상 필요한 이윤을 최소한의 리스크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자산, 지역, 시간 등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 가격의 변동 등은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수익을 획득하고 더불어서 연금지급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
3. 기본 포트폴리오를 책정하고 자산 전체, 각 자산 리스크, 각 운용 수탁기관 등의 각각의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함과 더불어 수동적 운용과 능동적 운용을 병행하여, 벤처 수익율(시장 평균 수익률)을 확보하고 수익을 낚는 투자기회의 발굴
4. 투자처 및 시장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이 운용 자산의 장기적인 투자 수익의 확대에 필요하다는 사고를 근거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재무적인 요소에 더하여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고려한 투자를 추진**
5. 장기적인 투자 수익의 확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투자처 및 시장 전체의 장기 지향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 **스튜어드십 책임을 다하도록 다양한 활동(ESG를 고려한 조합 포함)을 추진**

2) GSIA에는 현재 세계 각 지역의 ESG투자협회 7개 단체가 가맹. 가맹단체는 미국(USSIF), 유럽(Eurosif), 영국(UKSIF), 네덜란드(VBDO), 캐나다(RIA Canada), 호주(RIAA), 일본(JSIF: 일본서스테인어블투자포럼). 격년으로 발행되는 ‘GSIR’ 보고서는 미국, 유럽(EU), 캐나다, 호주, 일본의 5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 협회도 관련기관 투자자에게 조사표를 송부, 회수하는 형태로 정보 수집 실시. 남미에서는 2013년 ‘LatinSIF’가 조직되었으나, 아직 지역통계를 수집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함.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 지역협회가 탄생하지 못함. 일본 이외의 아시아지역은 지난번 ‘16년판 보고서에서는 UN PRI(책임투자원칙)이 데이터를 수집했으나, ‘18년판 보고서에는 실시하지 않음

3)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일본 연기금 관리 운영 공단)

○ GPIF가 채용하고 있는 ESG 관련지수별 운용자산 총액은 5조 7,261억엔

ESG 관련 지수	FTSE	MSCI	MSCI일본주(株) 여성활동지수(WIN)	S&P/JPX	S&P GLOBAL (일본 제외)
지수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유수의 역사를 가진 FTSE의 ESG 지수 시리즈 - ESG평가의 절대평가가 높은 종목을 심사하고 마지막에 업종 웨이트를 중립화한 ESG 종합형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1,000사 이상이 이용하는 MSCI의 ESG리서치를 기반으로 구축, 다양한 ESG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에 반영한 ESG 종합형 지수 - 업종내 ESG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활동추진법에 공시된 여성고용에 관한 DATA를 기반, 다면적으로 성별다양성 스코어를 산출, 각업종으로부터 同 스코어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수를 구축 - 해당분야에서 다면적 평가를 실시한 최초의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평가의 개척자적 존재인 Trucost에 의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토대로, 세계 최대급 독립계지수회사인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지수를 구축 - 동업종내에서 탄소 효율성이 높은(온실효과가스배출량÷매출이 낮음)기업, 온실효과 가스 배출에 관한 정보 공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비중을 높인 지수 	
대상	국내 주식	국내 주식	국내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지수가중후보 (TOPIX) ⁴⁾	FTSE JAPAN INDEX (509종목)	MSCI JAPAN IMI TOP 700 (700종목)	TOPIX (2,164종목)	S&P Global Large Mid Index(ex JP) (2,896종목)	
지수 구성 종목 수	181	248	305	1,725	2,037
운용자산액 (억엔)	9,314	13,061	7,978	9,802	17,106

(注) Data는 2020년 3월말 시점, 各指数会社提供データより GPIF作成

출처: JPX, GPIF의 ESG投資と情報開示(2020)

(계속)

<참고자료>

THE OWNER, ESGの意味とは? CSRやSDGsとの違いや企業での対応法について徹底解説, 2020.7.24.

PRI '責任投資原則', <https://www.unpri.org>

経済産業省, 気候変動分野に関するファイナンスの取組について, 2020.10.13

JPX(일본거래소), 「ESG情報開示実践セミナー」 GPIF의 ESG投資と情報開示(2020)

GSIA,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ibnet, CSR、SDGs、ESGの違いと関係性について, 2020.9.30

JPX(일본거래소), 「ESG情報開示実践セミナー」_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再改訂のポイント(2020)

JPX(일본거래소), GPIF의 ESG投資と情報開示(2020)

4) TOPIX는 주식회사 동경증권거래소(東証)가 산출·공표. TOPIX는 부동산(不動株) 조정후 시가 총액 가중지수로, 동경 증권거래소 시장 제 1부에 상장된 일본 국내 모든 보통 주식을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음